

잠녀 담은 일반의 시각 한자리에

해녀축제 일환 제6회 해녀촬영대회 수상작 전시회
2011년 1월5~2월28일 해녀박물관 로비서

등록 : 2010년 12월 29일 (수) 19:36:09
최종수정 : 2010년 12월 29일 (수) 19:36:09

고미기자 ☞ popmee@hanmail.net



▲ 해녀박물관이 내년 1월5일부터 2월말까지 지난 제3회 해녀축제 부대 행사로 진행된 해녀촬영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사진은 가작을 받은 윤상철씨 작품.

일반이 바라보는 제주 잠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녀박물관(관장 함천보)이 내년 1월5일부터 2월말까지 지난 제3회 해녀축제 부대 행사로 진행된 해녀촬영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한국사진가협회 서귀포지부(지부장 박영진) 주관의 제6회 해녀촬영대회에는 전국에서 300여명이 사진작가가 참가, 잠녀·잠녀문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전시장에서는 바다와 싸워 견뎌온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잠녀의 얼굴과 물질 대회 모습, 전통복장을 한 구좌읍 행원리 잠녀와 해녀축제에 참가한 일본 미에현 아마(海女)들을 담은 수상작 45점을 만날 수 있다. 문의=710-7774.